



최희섭

‘그라운드 풍운아’ 최희섭·김진우의 야구 인생 2막

야구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잘놈잘’이 있다. ‘잘하는 놈이 잘한다’.

지난주 KIA 팬들은 김진우와 최희섭을 보면서 ‘잘놈잘’이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 전매특허 ‘폭포수 커브’로 2승을 낀 투수 김진우와 4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올린 최희섭.

진흥고의 김진우와 광주일고의 최희섭은 고등학교 때부터 빅리그의 러브콜을 받은 소문난 특급 선수였다. 김진우는 7억원이라는 당시 프로야구 최고 계약금으로 타이거즈 일원이 됐고, 한국인 최초로 빅리그 무대를 밟은 타자 최희섭도 불고 돌아 고향 팀 KIA의 유니폼을 입었다.

KIA의 야구 실력과 우월한 신체조건을 가진 두 선수지만 이들의 야구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한국 프로야구와 한국인 타자를 대표해 정점에서기도 했지만 자신의 명성과 재능에 비하면 그 시간은 짧았다. 두 사람의 이름 앞에

는 나란히 ‘풍운아’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무단 이탈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던 김진우는 3년9개월의 시간을 임의탈퇴 신분으로 보냈었다. 최희섭도 팀을 무단 이탈하며 지난해 스프링 캠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그라운드에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련도 있었다. 특히 김진우의 임의탈퇴 철회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야구는 팀워크의 스포츠, 반복했던 실수와 실망 속에 마음이 식은 선수단을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사람들은 99%의 불가능을 얘기했지만

**무단이탈·임의탈퇴·부상 등 기나긴 방황
구단·동료들 믿음으로 이끌며 시련 이겨내
올 시즌 맹활약... KIA 선두 질주 주역으로**

KIA 김조호 단장은 주위의 반대에도 1%의 가능성을 선택했었다.

최희섭도 시련의 연속이었다. 거듭된 부상과 부진, 길었던 방황, 선수단의 신뢰를 잃은 최희섭은 그라운드에 흥미를 잃었다. 임의탈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2년 연속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4억원이었던 연봉은 1억 5000만원까지 추락했다.

올 봄을 앞두고도 위기가 있었다. 김진우는 캠프 막바지 팔꿈치 부상이 찾아오면서 시즌 출발이 늦어졌고, 최희섭은 다시 한번 구단의 예를 태우며 캠프 출발 날에야 겨우

서에 도장을 찍기도 했다.

어렵게 맞은 2013년 그라운드의 봄. 두 사람은 KIA 투·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어있다. 3년이 넘는 공백과 부상으로 인한 휴식이 무색할 정도로 김진우는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구위와 변화구를 선보이고 있다. 발동이 걸린 최희섭의 거포 본능은 4경기 연속 홈런으로 이어지고 있다.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김진우와 최희섭의 오늘이다. 이들을 잡아주고 지켜봐 준 동료와 관계자들이 있었기에 김진우와 최희섭의 2013시즌이 있다.

타고난 재능은 이들에게 축복이자 차가운 시련이기도 했다. 두 선수의 방황을 “나에게 그런 폼과 재능이 있었다면...”이라는 쓸쓸한 시선으로 지켜보던 이들도 있었다. ‘믿음’ 속에 얻은 야구 인생 2막. 이들이 써내려 갈 가을이야기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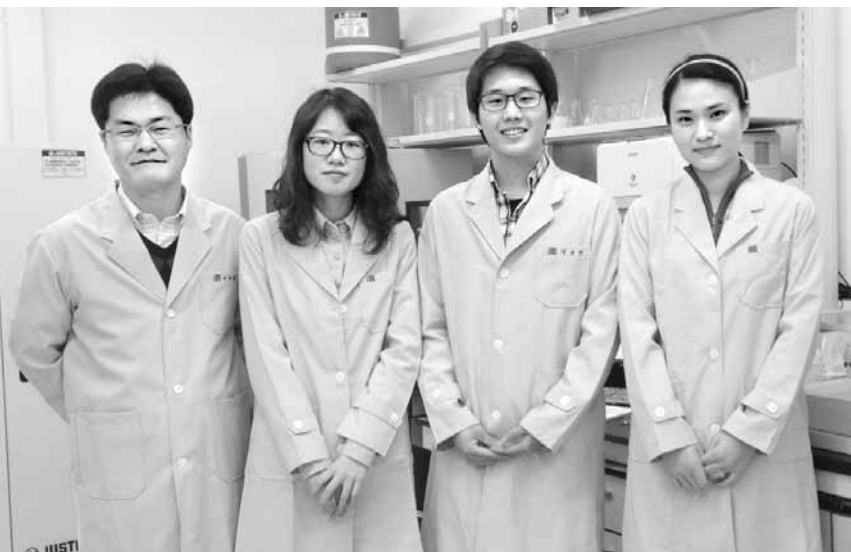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진우

인공 ‘안테나 단백질’ 합성 최적조건 찾았다

광주과학기술원 학부생 연구팀 성공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안테나 단백질’ 인공 합성 논문을 발표한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서지원(40) 교수와 제1저자 강보영(22)·제2저자 정술찬(22)씨·제3저자 안영덕(28)연구원(왼쪽부터).

학부생들이 제 1·2저자로 참여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식물의 광합성을 위해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했다.

이 논문은 이례적으로 1·2저자가 학부생인데다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면서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의 서지원 교수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 논문을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유기화학 학술지 ‘오가닉 레터스’(Organic Letters)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논문의 교신저자는 서 교수이며 제 1·2저자는 이 화학과 4학년인 강보영·정술찬씨, 제3저자는 안영덕 연구원이다. 특히 학사과정 학생이 연구논문의 보조참여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종종 있지만 강보영씨와 같이 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하거나 이번처럼 그 연구성과물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오르른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식물의 광합성은 클로로필 염료들로 구성된 ‘안테나 단백질’이 빛을 모아 그

빛에너지를 화학결합의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이다. 이런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구현해 더 높은 광수확 효율을 얻으려면 염료간의 최적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5가지 형태의 인공 안테나 단백질을 설계하고, 염료간 에너지 전달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를 찾아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물을 식물보다 더

높은 효율의 인공 광합성 안테나를 개발 하거나 광전자 소재개발 사업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책임자인 서지원 교수는 “35여년간 식물이 발전시켜 온 광합성 시스템의 효율을 이기는 것은 쉬운 도전이 아니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인공 광합성 안테나의 대량생산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준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 의장단 및 위원장단들이 22일 오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양 도시 간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교류협약 체결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대구시의회, ‘달빛동맹’ 힘 보탠다

상호교류협약... 군 공항 이전·88고속도 확장사업 등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양 도시 간 ‘달빛동맹’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와 대구시의회(의장 이재술)는 양 도시간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22일 대구시의회에서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양 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회 간 정기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 선언한 ‘달빛동맹’강화를 위한 공동 아젠다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각 분야·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양 의회는 ▲군 공항 조기 이전 ▲88고속도로 조기 확장사업 ▲2·28 대구민주화운동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상호 방문 등을 공동 안전으로 논의했다.

조호권 의장은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양 의회가 상호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시의회에서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송경종 부의장, 조오섭 운영위원장,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행정부시장 오형국씨 내정



광주시는 22일 “행정 부시장에 오형국(58·행시 27회)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오 신임 행정부시장은 광주일고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총무처,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장, 조직기획과장, 혁신기획관, 인력개발관 등을 역임했다. 이번 행정부시장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행정부시장·취임식은 각각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이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1면 ‘광주동네마트’서 계속

올해 초 새로 생긴 중흥마트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오모(55)씨는 “말마전에 대형마트가 손님을 싸들이더니 이제 중흥마트가 골목을 잠식하면서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소상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차원에서 일석 규모 이상이나 다수 가맹점을 둔 마트 업체 중 대기업으로 인정해 제재해줄 것을 입법부에 요구했다”며 “과열경쟁을 예방하고 영세상인들과 상생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업연대(준)는 영세지역업인의 죽음을 막고 생계유지 차원에서 영세업인 80%에 달하고 냉혹한 약육강식의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영세지역업인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제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금-269호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자구 영광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이나 성년층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율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율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율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8호